

금남로에서



정 후 식
논설실장·이사

‘행복의 나라’ 택시운전사 카르마에게 물었다. “얼마나 자주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잠시도 망설임 없이 답변이 돌아왔다. “늘 행복해요(Happy all the time)” 시장 상인 노르부나 가이드인 도르지의 응답도 한결같다. 약속이나 한 듯하다. 되레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는 눈빛이다. 언제나 행복할 수 있다나.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들의 반응은 세계 최고의 자살률, 부와 소득의 양극화, 금수저·흙수저 논쟁 속에 ‘헬조선’ ‘지옥불 반도’라는 비명 섞인 자조가 터져 나오는 나라에서 온 이방인을 혼란스럽게 한다.

부탄, 그들이 행복한 까닭은

치미는 욕망과 비움에 대한 갈망 그 사이 어디가에 서성대는 마음을 다잡아 델리(Delhi)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아젠 인도의 22번째 주(州)가 된 옛 시킴(Sikkim)왕국을 거쳐 세계에서 국민행복지수가 가장 높다는 부탄(Bhutan)왕국으로 향하는 여정이다. 서행골 북부 고산 휴양지 다르질링 인근의 끝없이 펼쳐

이 나라를 아십니까

진 차밭과 히말라야 산맥 가장 동쪽에 위치한 칸첸중가(8586m) 산군의 장대한 파노라마는 덩이다. 옛세간의 부탄 내 여로는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인 서부 부탄으로 잡았다. 국제공항이 있는 파로(Paro)와 수도인 팀푸(Thimpu). 옛 수도인 푸나카(Punakha)를 오가는 평균 고도 2000m의 산악지대다. 가는 곳마다 불법과 진리가 바람을 타고 세상 곳곳에 퍼지라는 염원을 담은 오색 깃발 풍다가 필력이다. 깎아지른 절벽에 자리한 탁상 곱바를 비롯한 수많은 사원들, 석탑 초르텐, 기도 문구가 새겨진 원통형 바퀴 마니차를 따라 도는 주린 행렬은 티베트 불교 신도들의 믿음을 웅변한다. 잘 보존된 숲과 생태계에는 자연 사랑이 그득하다. 개발로 얻을 이득을 포기하고 산림 면적이 국토의 60% 이상 유지돼야 한다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했다. 지하자원 채굴을 삼가고 도로 개설 때 터널도 뚫지 않는다. 이 같은 불심(佛心)과 천혜의 자연환경이 행복의 밑바탕일지.

인터뷰에 응한 부탄인들이 제시한 행복의 지표는 이렇다. “국가가 교육과 의료를 무상 지원한다. 외국인 여행객도 진료는 공짜다. 게다가 국왕이 오지 마을까지 일일이 찾아가시며 세심히 돌봐 준다.” 촘촘한 복지 정책과 소통하며 헌신하는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근원이라는 것이다.

인구 77만 명의 소국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를 밑도는 부탄이 ‘행복 강대국’으로 부상한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1972년 제4대 국왕인 지그메 싱게 왕축이 제안한 국민총행복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 덕분이다. 경제적인 발전만을 보여 주는 국내총생산(GDP) 대신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감 등을 반영한 지표를 만들자는 것이다.

현 국왕인 지그메 케사르 남갈 왕축은 부왕의 뜻을 이어 2008년 이를 국가 정책의 기본 틀로 채택했다. 평등하고 지속적인 사회경제 발전, 전통 가치의 보존 및 발전, 자연환경 보존, 올바른 통치 구조 등이 4대 축이다. 그 결과 유럽신경제재단(NEF)이 조사한 국가별 행복지수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국민 100명 가운데 무려 97명이 ‘나는 행복하다’고 답했다. 현 국왕은 나아가 ‘국가는 왕보다 중요하다’며 스스로 절대군주제를 폐지하고 민주 헌법을 선포했다. 의원내각제에 기초한 입헌군주제로 전환한 것이다.

더욱 눈길을 끄는 건 전통문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남성은 ‘고’, 여성은 ‘키’라하는 고유 의상을 입고 모든 건물은 전통적인 건축양식을 따른다. 전통의 미덕은 끈끈한 공동체 문화에도 살아 숨 쉰다.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그들을 보면 저절로 힐링이 되는 듯하다.

고이 지겨운 자연환경과 생활양식은 그 자체로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 부탄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느는 이유다. 정부는 여기에도 제어 장치를 뒀다. 하루 250달러의 체재비 규정이다. 이는 외국인 여행자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낭만적이게도 부탄에 첫눈이 내리는 날은 임시 공휴일로 선포한다. 세계 최초로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등 독특한 제도 발전만을 보여 주는 국내총생산 속에 실업과 범죄가 늘고 있다. 인접국 네팔로부터 밀려오는 난민도 사회적 문제다. K팝과 한국드라마를 즐기는 청바지 차림의 젊은이도 눈에 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첫눈 내리는 날은 공휴일

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국과 부탄은 외모와 음식 등에서 닮은꼴이면서도 여러모로 대비된다. 부탄이 국민행복지수를 개발하던 1970년대 초 한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국내총생산을 늘리는 데 주력했다. 40여 년이 지난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이 10배나 많다. 반면 국민행복지수는 부탄이 세계 최상위를, 성장 제일주의 무한 경쟁 사회인 한국은 최하위를 맴돌고 있다.

지난해 히말라야 트레킹을 위해 부탄을 찾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국식 ‘국민행복지수’ 개발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국정 운영의 중심을 국민 삶의 질에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국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 국가의 존재 가치는 없다.” 국민행복지수를 제안한 부탄 국왕의 말이다. 그런 점에서 부탄과 한국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who@kwangju.co.kr

은편칼럼

퇴근 후 카톡, 생각 좀 해보시자구요

해본 경험이 있는 근로자는 전체 응답자 중 70.3%로 나타났다. 개인적 여가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업무수행을 권유받고 있는 근로자도 29.3%에 달한다니 재택근무자도 아닌데 업무시간이 따로 없는 셈이다.

더구나 공적인지 사적인지 구분이 애매한 직장구성원끼리의 카톡방은 도중에 빠질 수도 없는 애물단지다. 같이 근무했던 선후배들의 모임방, 등산이나 축구 등 취미를 공유하는 카톡방은 누구나 서너개쯤 갖고 있기 마련인데, 이걸 또 늦은 저녁이나 새벽을 가리지 않고 울려댄다. 전혀 알고 싶지 않고 관심이 없는 맞짱이며, 명소고 놀러간 후기, 공식행사로 아닌데 끼리끼리 찍은 사진들은 왜 그리 올려대는지, 반가운 적 한번이면 귀찮은 건 서너 번이다.

답장 안해도 부담 없는 동료는 그런다 치자. 월요일이면 차 한잔하면서 나눠도 될 듯한 얘기를 꼭 주말에 올려야 직성이 풀리는 상사는, 심중팔구 답장 없으면 섭섭해 하기 마련이다. 뽕기 싫어서가 아니라, 사적인 시간만은 좀 놓아주면 월요일 아침에 뽕는 그 분 얼굴이 훨씬 반가울 것 같다. 그런데 정부 부처 내에서 업무량 많고 야근이며 주말근무가 다반사인 기획재정부가 토요일에는 전화와 카톡 등 업무관련 연락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부총리부터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사무실에 나오지 않겠다고 해 주목을 받고 있다. 두 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 온전한 토요일을 보내고 있는 직원들의 표정이 확 달라졌다고 한다.

광명시에서도 지난 7월 ‘직업 인권보장 선언’에서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퇴근 후 카톡 등 업무 관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업무지시를 내리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이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시정에 반영한 것이다. 따지고 보면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전국지자체 중에서는 최초 시행한 것으로, 다른 자치단체와 산하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퇴근권에서는 근로시간외의 시간에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카톡 등을 통한 업무 지시로 사생활 침해는 물론 실질적인 노동시간 연장으로 인한 근로자 스트레스를 줄여 준다는데, 제조업, 서비스업 등

직종마다 다른 특성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모양이다.

예를 들어 퇴근 후 잔업을 요청받은 제조업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추가 수당이 주어져야겠지만 수시로 업무연락이 이루어져야 하는 관리직이나 중간책임자, 보안관련 업계 등은 어디까지가 근무시간이고 시간외근무인지 모호한데다 보상이 준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OECD 34개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랜 시간 일하는 우리네 근로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 준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무자르듯 맹목하게 정할 수 없고, 어디서 어디까지나 하는 것은 사장에서부터 말단 직원에 이르는 구성원 모두의 몫이다.

퇴근 후에 생각하는 일이 있더라도 문자 먼저 두드려 직원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지, 아침에 지시해도 늦지 않는 것인지 배려할 줄 알아야 하고, 일이 생길 때마다 주판알 튕겨 계산하지 않고 회사 일에 앞장서는 직원들이 늘어날 때, 우리의 저녁은 훨씬 평안해질 것이다.

기 고

1인 가구 증가와 농산물 소비트렌드

한 ‘2016년도 농식품 소비 트렌드’에 따르면 1인 가구 소비자는 딸기·바나나·방울토마토 등과 같이 껍질처리가 쉬운 과일을 선호하고, 고구마·감자 등과 같이 저장성이 좋은 품목에 대한 구매율이 높았다. 또 전반적으로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액이 많고, 구매처도 편의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빈도가 2배 이상 높았다. 일별의 경우에도 1인 가구 시장을 겨냥해 농산물의 채소와 과일이 소포장 개념을 넘어 미니사이즈로 품종이 개량되고 있다. 유통서비스 분야에서도 다양한 품목을 소량 구매하는 1인 가구의 소비 특성에 맞춰 여러 가지 농산물을 소포장별로 배송해주는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형태 등으로 발전해 가고 있고, 다품목 소량구매 고객에게 택배비를 1회만 부과하는 묶음 배송 기능도 1인 가구 맞춤형 서비스로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농업비즈니스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할까? 1인 가구의 특징은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이 지갑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도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과 서비스가 필요하다. 농산물을 생산할 때 자신의 건강과 미용 등에 관심이 많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편리성을 추구하는

1인 가구의 소비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맛과 기능성은 최대한 높이고, 소형화해 휴대가 간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최대한 신선하고 다양한 상품을 함께 묶어 판매할 수 있는 상품도 개발하고, 1인 가구의 이용이 많아질 온라인 직거래와 편의점 납품도 확대해야 한다.

1인 가구 비즈니스는 ‘나홀로’하는 것뿐 아니라 함께 하는 개념에서도 돈을 벌 수 있다.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혼자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혼자 잠을 자는 일은 일상적인 일이다. 그래서 이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정을 꾀하려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게 되고, 여럿이 함께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게 된다. 농업 분야에서도 자연경관과 같이 농업·농촌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이용해 이들이 식사뿐만 아니라 요리를 함께 만들거나 게임을 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

필자는 전남농업기술원이 추진하고 있는 ‘팜파티’(Farm party)와 농촌교육농장에서 추진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1인 가구의 취향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농장주가 직접 소비자를 초청해 농촌문화를 경험하게 하고, 농산물 생산자와 만남을 통해 신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또 1인 가구의 함께하는 개념으로는 펫(pet)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다. 반려동물 생활인구가 1000만명 시대, 1인 가구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반려동물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해졌다. 1인 가구에 있어 반려동물은 단순히 집에서 키우는 동물

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차별화된 펫사료나 펫의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아이템도 1인 가구시대를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작고 껍질처리가 쉬우면서 기능성이 뛰어난 농산물 재배기술 및 품종 개발 보급과 유용 곤충을 활용한 펫사료 개발에도 매진하고 있으며,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된 가공제품 생산을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가공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소규모 가공 및 가공창업 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社 說

5·18사적지 전일빌딩 역사성 살려 보존해야

광주의 랜드마크이자 ‘호남 언론의 1번지’로서 5·18민주화운동 등 현대사 현장을 지켜온 전일빌딩이 5·18 사적지로 지정됐다. 5·18 이후 37년 만에다. 이에 따라 헬기 사격 탄흔 현장에 대한 원형 보존과 나머지 공간에 대한 역사성을 살린 리모델링 등 체계적 관리가 절실해졌다. 광주시는 14일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마지막까지 항쟁했던 전일빌딩을 5·18 사적지 제28호로 지정했다. 금남로 쪽 전면부 3차 건물 10층 내부와 뒤편 2·3차 건물 외벽이 그 대상이다. 전일빌딩은 1968년 7층 건물로 준공된 뒤 4차례 증·개축을 거쳐 1980년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현재 모습을 갖췄다. 사적지 지정에는 국가기관인 국립과학사연구원의 헬기 사격 탄흔 조사 결과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총탄 흔적은 옛 전일방송 기자재실 등 10층 내부에서 177개, 2·3차 건물 외벽에서 16개가 확인됐다. 이로써 전일빌딩은

뒤늦게나마 원형 보존과 함께 면밀한 관리가 이뤄지게 됐다. 광주시는 탄흔이 발견된 10층 전체를 원형 보존하고 교육·기념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일빌딩은 호남 언론의 뗏자리이자 매카였다. 1980년 언론 통폐합으로 옛 전남일보와 옛 전남매일이 합쳐진 광주일보보 2004년까지 이곳에서 자리를 지켰다. 전일방송과 연합뉴스(옛 연합뉴스)도 이곳에 함께 등지를 틀어 신문·방송·통신이 한 지붕 아래서 뉴스와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5·18 당시에는 내외신 기자들이 군부독재의 날선 통제 속에서 시민의 항거와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 과정을 취재·보도했던 격동의 현장이었다. 호남인과 애환을 함께 한 이러한 역사성은 결코 지워져서는 안될 소중한 가치다. 지역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현재 진행 중인 건물 리모델링에도 적극 반영해 고품격 자산으로 부활시켜야 할 것이다.

호남 인사 중용 국정 기조로 유지돼야

문재인 정부 들어 호남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대거 중용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광주일보가 청와대와 정부 부처 등 100대 요직을 분석한 결과와 청와대 및 장·차관 인사에서 ‘호남 중용’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영광 출신) 국무총리와 임종석(장흥)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탁은 호남 중용의 신호탄이었다. 특히 장항성 정책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참모진 13명 가운데 4명이 호남 인사로 채워졌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 라인인 2~3명에 불과해 호남 소외론의 불씨가 됐던 점마저 보완한 조치로 보인다. ‘18부 4처 17청’의 정부 조직을 기준으로 총리와 장·차관, 각 부의 차·청장 등 차관급 이상 인사 70명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이 15.7%(11명), 전북 출신은 14.3%(10명)으로 호남 출신이 전체의 30%(21명)을 차지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15.9%)의 배에 달

하는 것이다. 또 광주일보가 자체 분석한 청와대와 내각, 정부·사정기관, 금융·공정거래, 군부 등 정부 주요 100대 요직에서도 호남 출신은 28%에 달했다.

호남은 지난 1997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광복이후 50여 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집권세력이 되지 못했다. 더욱이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 아래에서는 지역 개발과 인사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차별을 받았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를 출범시킨 모태로서 반 세기에 걸친 흑과 대 정채 라인이 2~3명에 불과해 호남 소외론의 불씨가 됐던 점마저 보완한 조치로 보인다. ‘18부 4처 17청’의 정부 조직을 기준으로 총리와 장·차관, 각 부의 차·청장 등 차관급 이상 인사 70명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이 15.7%(11명), 전북 출신은 14.3%(10명)으로 호남 출신이 전체의 30%(21명)을 차지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15.9%)의 배에 달

無 等 鼓

소설가 조정래는 좋은 글쓰기의 원칙으로 ‘4 : 4 : 2 법칙’을 강조한다.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써보라’는 다독·다상량·다작을 4대 4대 2의 비율로 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번만 나오는 문장이 자기 문장’이라며 가하면 밑이 고칠 것을 주문한다. 그런 것도 글쓰기 전에 취재기자 못지않게 현장에서 자료 수집하는 것을 중시한다. 아무리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생생한 현장 경험 없이는 살아있는 글이 안 나온다는 신념에서다.

조선일보 이규태는 현장 경험과 세밀한 자료 조사를 통해 ‘아

언론사도 길이 남을 칼럼이다. 백과사전적 지식을 원고지 6.5매에 담았는데 ‘잡학의 미학’ 그 자체였다. 인터넷에 선 찾을 수도 없는 디테일한 정보를 사망까지 직전까지 6702회나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만든 자신만의 방대한 자료 덕분이었다.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책을 읽는 것이 습관이었고 평생 모은 1만5000여권의 책에서 얻은 정보를 가공해 10만여개의 색인으로 분류해 글쓰기에 활용했다.

인공지능(AI)이 글쓰기 영역에도 들어와 국내에서도 로봇 기자 시대가 열렸다.

SBS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때 로봇 기자 ‘나리’를 선보이는데 이어 이번에는 연합뉴스가 ‘사키봇’이라는 로봇기자가 작성한 영국 프로축구 경기 기사를 제공하기로 했다. 로봇기자는 경기가 끝난후 1~2초만에 기사를 송고한다고 한다.

속보에 있어서는 로봇을 당할 재간이 없다. 인터넷에 넘쳐나는 똑같은 기사도 이제 설 자리가 없어 됐다. 로봇기자가 쓴다. 현장감 있는 탐사 및 심층분석 기사와 칼럼이 오히려 빛을 발할 것이다. /정필수 전남본부장 bungy@

글쓰기와 로봇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간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